

동중부 KCLC Newsletter



8월의 시 - 詩 / 오세영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섶에 산나리,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인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 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CLC in USA 소식

- National Assembly News: Discerning Pathway for Hope July 25-28, 2024, John Carroll University In OH에서 170명 참가
-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한 Nomination Committee 결성
- 영문 CLC Handbook project 준비
- Update on EA: 현 EA Fr. Dom Nguyen served through March, 새 EA Fr. David Godeski
- Continued support for Synod;

NKCLC 소식

- 새 NKCLC 의장과 임원 선출 (2년 임기)
전국 의장: 박연순 에스터(NY), 총무: 이형주 스텔라(애틀랜타)
양성코디: 최미자 데레사(NY), 재무: 최화경 사라(서부)
클러스터 코디: 이수자 데레사 (시카고)
청년팀 코디: 오주연 크리스티나 (시카고)
- 미주 한인 CLC (NKCLC)가 그동안 5개 지역 (애틀랜타, 뉴욕, 서부, 동중부, 시카고) 에서 2023년에는 달라스, 토론토, 보스톤 세 지역의 공동체를 "클러스터" 체제로 만들어 NKCLC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evised 된 북미주 내규 참고)
- 지난 6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클러스터 공동체에 12명의 첫 서약자가 탄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중부 소식

- 스페인 침묵 피정과 순례 마침 (3월 26일~ 4월 7일)
- 클러스터 모임 (with Project 181, 5월 18일,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 지원기 모집: 9월
- 북클럽 현황 (17명 참가, 다음 도서 결정 & 주문)
- 가을 줌 피정 안내 (이훈관 사도 요한 신부님 SJ) 9월 13일, 20일, 27일, 서약식 10월 4일
- 2025 연피정 안내 (최재석 프란치스코 신부님, 8월 1일~9일까지 로올라 피정집)
- 2024 USA Assembly 회원 10명 참여 (John Carroll University, OH)
- 동중부 가이드 교육 실시 (참여 회원: 채민아 안나, 유희선 안나, 이정렬 마리아, 김정현 엘리자벳, 강혜진 베로니카 with 가이드팀)
- 전국 클러스터 팀 가이드 파견 (강혜진 베로니카, H 데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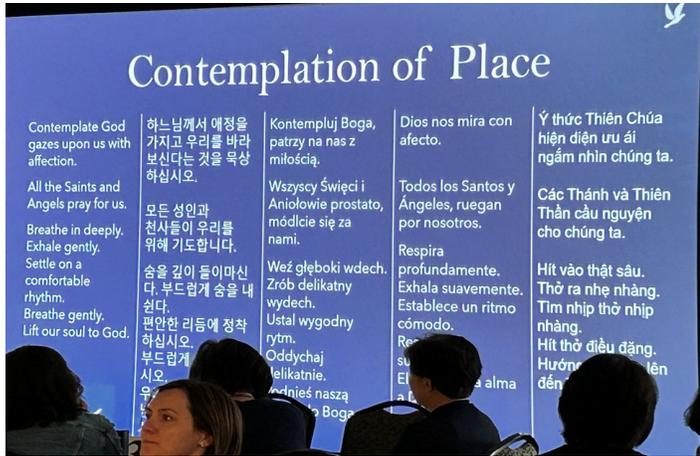


새 EA 소개합니다

David A. Godleski, SJ, was born and raised in Grand Rapids, MI. After completing a Ph. D. in Applied Mathematics at Northwestern University, he entered the Society of Jesus in 1988 and was ordained a Jesuit priest in 1998. Fr. Dave has served as vocation director, worked in Campus Ministry/Mission and Identity at Loyola University Chicago (LUC), coordinated the Spiritual Exercises in Everyday Life at LUC and worked for the Jesuit Conference of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DC as the Delegate for Formation and Jesuit Life. He currently is minister and treasurer for the Jesuit Community at LUC but will return to DC in the Fall of 2024 to become the Treasurer for the Jesuit Conference.



2024 USA Assembly “Discerning Pathway for Hope”



2024 USA Assembly “Discerning Pathway for Hope”

Discerning Pathway for Hope 위한 우리의 식별 과정

2023년 에미앵 세계 총회에서 실시된 식별의 방법 “Emmaus Walk”으로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Attentive listening), multiplied 되어 식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엠마오 제자처럼 서로 두명씩 짝이 되어...

4명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듣기...



8명이 되어...

그리고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외 각자의 Local Community에서 제출한 Project 181 열매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5)

예루살렘에는 나치 독일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관에는 ‘기억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불꽃이 언제나 타오르며 ‘구원의 신비는 기억에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의 성당안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체를 보존하는 모든 성당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감실입니다.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신비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명을 빵을 먹고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자 그 감사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선물을 다시 맛보는 자리입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생명의 빵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쪼개진 빵을 먹고 치유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억을 통해 위로의 치유자로 다시 태어난 엠마오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5,7-21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16)

어제 지인에게서 상기시킨 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 (Alice)와 체셔 고양이 (Cheshire Cat)의 대화입니다.

A: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 알려줄래?

C: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 있지

A: 어디든 상관없어

C: 그럼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겠네

A: 내가 가야할 목적지가 있는 한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지

C: 아 그러면 너는 목적지가 도착할 수 있지. 충분히 오래 걷기만 하면

주님, 매일 주님이 거하실 저의 초막이 형편없게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는 수만큼 다시 초막을 세우는 일은 저의 운명입니다. 충분히 세우고 세우다보면 주님의 발길앞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저를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등대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6, 16-20

조지 산타야나 (George Santayana)라는 철학자는 “환멸은 지혜의 어머니 (wisdom comes by disillusion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견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 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실을 대면합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진실앞에서 그들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지혜에 도달합니다,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환멸은 그들을 더욱 명료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은 희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희망은 망상입니다. 희망은 지금은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과 존중의 태도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 희망과 지혜에 대한 찬가입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5,1)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사라질 천막집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오 5,1-12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행복을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정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말입니다. 과연 행복은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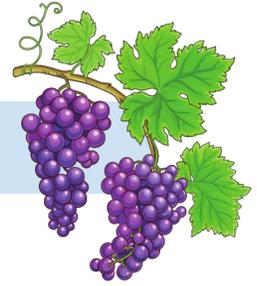
행복의 크기를 한국 사회는 명문대 진학이나 부의 크기 집의 위치 등으로 정하기 일쑤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 출신의 268명과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도시 저소득층 고교 중퇴자 456명과 지능지수 (IQ)가 높은 여성 90명을 비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연구를 무려 70년 넘게 하였습니다. 행복은 건강한 생활 습관 (자신을 돌보기)과 관계 및 결혼생활의 질 (이웃을 돌보기)로 판가름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안에 있는가는 행복의 절대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나의 행복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묻기보다 남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행복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큰 줄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슬프게도 공동체, 공동선, 함께, 배려 등의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증발된 화석화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이미 절단된 상태같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질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마태오 8,23-27

제 1독서의 아모스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수녀님들께서는 예언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는 '선견자'(1사무 9,9) 또는 '하느님의 사람' 등으로 표현됩니다. 저에게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똑바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오늘 복음에서는 호수를 건너가는 예수와 제자들이 거센 돌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나를 탕진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을 만납니다.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 삶을 지탱할 원천들이 사라진 것 같은 시점에서 어떤 "돌파"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요? 이때야 말로 우리가 예언자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증받는 시간이 아닌가요? 어떻게 폭풍우속에서도 어려움속에서도 예언자직을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단순해 질 것이다. 악마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Project 181 클러스터 모임에서 얻은 열매들

- 함께 하는 여정에 적극적 동참, 하느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위로의 구심점은 그리스도, 사도직에 투신할 수 있음
- 함께하는 삶 안에서 주님이 주도하심을 알아차림
- 모두가 함께하는 안에서 주님 찾기, 공동체에서 받는 힘, 공동체의 역할
-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하기, 끊임없는 노력과 열망, 초대 받은 우리, 희망의 닳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새기고 알아차림, 감사와 겸손

(오종선 로사리아 정리, 씨앗팀)



2024 스페인 침묵피정 & 성지 순례



March 26: First Greetings, and Departure from Dulles Airport



March 27: Arrival and Transfer Frankfurt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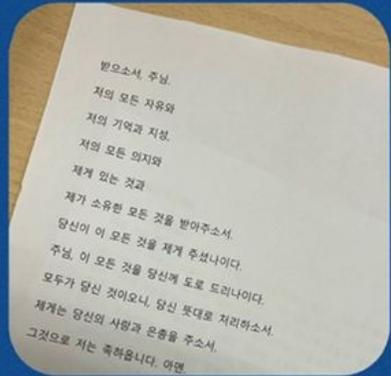


March 27: Arrival in Madrid and Lunch at Han Gang



Be Thou my Vision
(May you be my dream of hope)

Lord of my heart, may you be my dream
of hope;
I have nothing but the Lord;
Day and night, the Lord is my best
thought, and when I am awake or when I
sleep, your presence is my light.



받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게 있는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셨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족하옵나이다. 아멘

March 28 - 31: Four Days of Silent Retreat; Lectures on the Life of Saint Ignatius; and Meditation Assignments



동중부 KCLC Newsletter

4월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목화 송이!!!!
피정 마지막 날 (Easter Morning)은 아름다운 함박눈을 선물로 내려 받았습니다!



**It is Easter morning
and we wake up to an
unexpected time
change—leaping
forward in Spain!**

**Equally unexpected, we
are greeted this Easter
morning with large
flakes of falling snow!
So delightful in its
unexpectedness.**

